

# 제조업 국내공급 1년 만에 증가... “반도체장비 수입 증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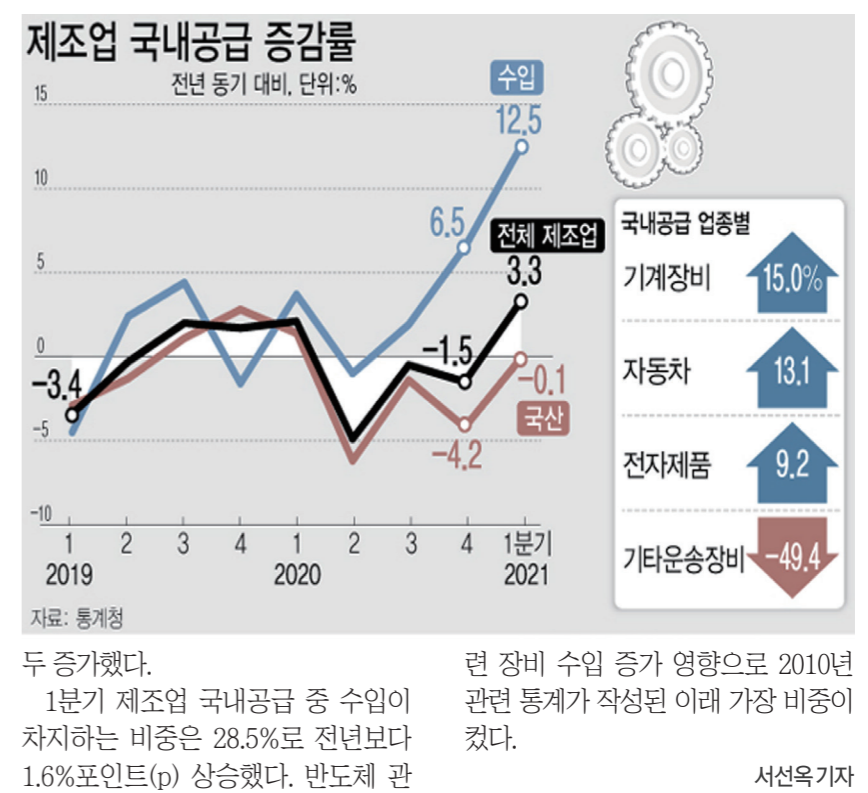
### 통계청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발표 수입 12.5% ↑ ...2017년 2분기 이후 최대 폭 수입차지 비중 28.5%...통계 작성 이래 최대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이 4분기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등 수입이 늘면서 제조업 국내공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5.6(2015=100)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3% 증가했다. 2017년 3분기(8.1%) 이후 14분기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국산은 기타운송장비, 전자제품 등

이 줄어 0.1% 감소했으나 수입은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이 늘면서 12.5% 증가했다. 수입 증가 폭은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국내공급은 국산과 수입을 포함해 제조업 제품이 국내에 공급된 흐름을 품목별 실질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다. 내수 시장 전체의 동향과 구조 변화 등을 공급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제조업 국내공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2분기(-4.9%), 3분기(-0.5%),

4분기(-1.5%)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올해 1분기에 반등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 호황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와 관련된 기계장비 수입이 많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국내공급이 늘었다”며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수입이 증가한 영향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제품은 최종재와 중간재(광공업과 다른 산업의 원재료, 연료, 부품 등으로 투입되는 제품)로 구분된다. 최종재는 다시 소비재(개인 또는 가계에서 구입, 사용되는 제품)와 자본재(각 산업에서 생산 관련 활동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나뉜다. 1분기 최종재는 소비재(4.7%)와 자본재(0.2%)가 모두 늘어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국산은 4.9% 감소했

으나 수입이 23.6% 늘었다. 소비재는 휴대용전화기, 소형승용차 등이 늘어 4.7% 증가했으며 자본재는 웨이퍼 가공 장비, 반도체 검사장비 등으로 0.2% 늘었다. 특히 자본재 국내공급은 국산은 13.8% 쪼그라들었지만, 수입이 32.6%나 경총 뛰었다. 중간재는 국산(3.2%)과 수입(4.6%)이 모두 늘면서 3.6% 증가했다. 자동차부품, 시스템반도체 등이 증가하면서 중간재 국내공급 증가에 견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운송장비는 국산(-52.2%)과 수입(-27.3%)이 모두 줄어 49.4%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166.6%)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가장 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항공기 부품 등 수요가 줄어든 원인도 포함됐다. 반도체 업종 호황으로 인한 기계장비(15.0%),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전자제품(9.2%),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반영된 자동차(13.1%) 등은 모



두 증가했다.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로 전년보다 1.6%포인트(p) 상승했다. 반도체 관련 장비 수입 증가 영향으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비중이 컸다. 서선욱기자



KT, IPTV와 LTE 태블릿 기능 갖춘 올레 tv 탭 출시  
KT가 IPTV와 LTE 태블릿 기능을 동시에 갖춘 '올레 tv 탭'을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모델이 올레 tv 탭을 체험하고 있다.

## 세금 신고·납부 원클릭으로...국세청, '세금 내비' 도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내비 적용 홈택스 좌상단 '펼치기' 클릭하면 돼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세금 신고·납부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지난 4일 도입한 '내비게이션' 덕분이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 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다음에 선택해야 할 메뉴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좌측에 있는 내비게이션 배너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은 4단계(안내문 선택→신고서 작성→신고서 관리→납부하기)로 구성된다.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각 납세자의 신고 유형에 맞는 메뉴를 연결된다. 이전에는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했지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신고서 관리' 단계에서는 신고 부속서류 제출, 신고 결과 조회, 납부서·접수증 출력, 전자 신고 삭제 요청 등이 가능하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신고 부속서류 제출' 버튼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서류를 내면 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납부서·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은 계좌 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 ▲공적 연금만 있는 자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신고 진행 상황과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 도움 서비스(개별 분석 자료 등), 신고 부속서류 제출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이용 중 홈택스를 종료(로그아웃)하더라도 진행 단계 기록은 서버에 남는다. 다시 로그인하면 남은 절차를 이어 밟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달 31일(성실 신고 확인 제출자는 내달 30일)까지만 제공된다.

## SSG닷컴, 백화점 상품 무료 배송·반품 나선다

SSG닷컴이 신세계백화점 상품에 대한 무료 배송·반품 서비스를 실시한다. SSG닷컴은 지난 6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선식품, 가전 카테고리를 제외한 신세계백화점 전체 상품 52만여종을 무료로 배송, 반품하는 '백화점 배송·반품 ALL 프리패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SSG닷컴이 백화점 상품 무료배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백화점몰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 갯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배송' 쿠폰을 무제한으로 발급한다. 또 사이즈, 색상 차이 또는 단순 변심 등에도 망설임없이 구매할 수 있는 '무료반품'도 월 10회까지 가능하다.

반품을 희망하는 고객은 SSG닷컴 애플리케이션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한 후, 이벤트 페이지의 적립금 페이지 버튼을 통해 최대 3만원까지 SSG머니로 돌려받을 수 있다. 동일 상품의 재판매가나 신선식품, 가구, 가전, 설치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오유나기자

## '픽업부터 청소까지' 현대차, 전기차 충전대행 서비스

### 2만원에 픽업·충전·실내 청소 서비스...세차 옵션 추가 가능 서울 우선서비스...운영 데이터 확보 후 대상 지역 확대 예정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충전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차는 전기차 구매자들을 위해 '픽업충전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10일 밝혔다. '픽업충전 서비스'는 현대차의 전기차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위

치에서 차량을 픽업해 충전과 간단한 실내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고객에게 다시 차량을 인도해주는 충전 대행 서비스다.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17MY 이후 DC콤보 타입 차량)에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마이현대' 앱에서 희망하는 날짜, 시간, 차량 위치, 디지털 키를 활용한 비대면 여부 등을 선택한 후 픽업 비용 2만원을 결제하면 된다. 타승 거리에 따른 비용 추가는 없다. 예약이 완료되면 배정된 담당 기사는 고객이 희망한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하고 인근 충전소에서 최대 80%까지 충전한 후 간단한 실내 청소 서비스를 마친 후 고객에게 다시 차량을 가져다준다. 1kWh 기준 255.7원인 충전 비용은 별도 실비 정산된다. 고객이 희망할 경우 추가 5000원 결제를 통해 기계세 세차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픽업충전 서비스'는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의 5개 타임으로 운영되며, 시간대별 5건씩 1일 25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고객 수요 및 운영 데이터 확보를 통해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광제기자

## 중견련, 24일부터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 산업부·IBK기업은행과 공동...다음달 4일까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이달 24일부터 6월4일까지 2주간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한다. 이 박람회에는 다날, 더존비즈온, 에듀윌, 예코프로비엠, 한미셀스케이 등 BIG3(마라차·바이오셀스·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50여 개 우수 중견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원, AI 역량 검사, 면접 등 모든 과정의 인터랙션을 강화한 최신 비대면 채용 프로세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자기소개 영상 제출, 대면 면

접 단계를 생략하고 AI 기반 이력서 및 역량 검사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절차는 간소화하고, 소통의 효율성은 끌어올렸다. AI 분석 결과는 인·적성 및 직무 능력 검사에 준하는 보조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또 MZ세대 눈높이에 맞춰 중견기업 탐방 영상과 재직자 브이로그, 재직자와의 생생한 '토크 콘서트', 인사 담당자 참여 '라이브 채용 설명회'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구직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0일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17일부터 21일까지 자기소개서



작성 및 AI 면접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전문가 GX 등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민정기자

## 국민 4명 중 3명 "공공전세주택 몰라요"...홍보 시급

### 공공전세주택 참여 의향은 93.1%로 높아

국민 4명 중 3명은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전세주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지방'은 지난 달 14~29일 지방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2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9%(1542명)가 공공전세주택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고품질 자체와 편의시설,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보증금이 특징이다. 반면 공공전세주택에 대한 소개 후 입주자 모집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1%인 1942명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전세주택에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은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할 것 같아서'(32%), '월세가 아닌 전세

형태라서'(28.8%) 등의 이유로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8.2%(558명)가 '저렴한 분양가'를 꼽았다. 이어 ▲일정기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19.2%) ▲전월세 매물부족시장에서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 가능(13.6%) ▲잘 모르겠다(10.3%) ▲임대료 저렴, 임대료 상승 우려 부담 적다(9.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이슬기자